

勞 動 經 濟 論 集
第19卷(1), 1996. 7. pp.329~356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國家競爭力 強化와 職業訓練*

宋 瑋 燮**

< 目 次 >

I. 머리말	III. 國家競爭力과 職業訓練
II. 우리 나라 經濟의 現況과 國家競爭力	IV. 職業訓練政策의 改善方向
	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 나라 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착실하게 집행해 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결실을 맺어 괄목할 만한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아울러 산업구조의 고도화, 복지수준의 점진적 상승 등 중진국의 모범을 보이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간에 걸친 경제의 획기적인 量的 成長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경제의 長期的 成長을 지속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수의 경영자, 학자, 정책당국자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 경제는 종래의 量的 成長에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안에 質的 成長에로의 구조전환을, 조직적이고도 착실하게 진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국내외적인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으로 세계는 문자 그대로 국경없는 경쟁시대(Globalization),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 본 논문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한 1995년도 추계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논문이다.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가 국제화의 물결을 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여건에 알맞는 지역경제협력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APEC, NAFTA, ASEAN 들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우방이자 경제협력의 파트너인 미국은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로 다수당인 공화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주의(Consevatism)에로의 회귀현상으로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 앞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국제무역에서 불공정 무역의 관행에 의한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균형예산의 달성을 위한 대폭적 지출억제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요인 타개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우리 나라 등에게 파격적인 개방압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도도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 할 우리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짜여져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보다도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 투자의 활성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개발의 촉진, 기업경영의 대혁신, 사회적 여건의 개선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인바, 특히 사회적 여건의 개선으로는 정부규제의 실질적 완화, 기업간 공정경쟁체제의 확립, 노사간 산업평화의 달성,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중경제구조의 개선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중경제구조의 개선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축소, 농업과 제조업간의 상호격차 축소를 통한 보완관계 정착, 소득불평등의 점진적 해소, 지역간 개발격차의 축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확대를 통한 구조적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착실하게 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력해야 할 사항이다.

앞에서 본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중에서 본고에서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인적자원론에서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직업훈련(on the job training)에 대하여, 국가경쟁력과 직업훈련간의 상관관계, 직업훈련정책의 개선방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언급해 보기로 한다.

II. 우리 나라 經濟의 現況과 國家競爭力

앞 장에서 우리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간의 우리 나라 경제의 착실한 성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간단히 주요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민총생산은 1960년의 19억 달러에서 1990년에는 2,422억 달러로 약 127배나 늘었으며, 1994년에는 1960년의 약 198배인 3,769억 달러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60년의 79달러에서 1994년에는 8,483달러로 늘어났다. 한편 수출총액은 1960년에 3,3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는 960억 1,300만 달러에 달하여 무려 1,909배나 격증하였다. 총인구는 1960년의 약 2,500만명에서 1994년에는 약 4,400만명으로 늘어났으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의 가족 계획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1960년의 3.0%에서 1994년에는 0.9%로 격감하여 1인당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시화율 또한 1960년의 28.0%에서 1990년에는 74.4%로 크게 늘어 인구의 4분의 3이 도시에 거주하는 선진국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구조를 보면 1960년에 37%에 달하던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1990년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인 9%로 감소하였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1994년에는 7%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공업의 비중은 공업입국으로 성장한 배경을 여실히 보여 1960년의 16%에서 1994년에는 27%로 크게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1960년의 47%에서 1994년에는 64%를 보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선진국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왕성한 투자활동에 의한 성장을 반영하듯이 우리 나라의 총투자율은 1960년에는 10%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34%로 크게 늘어났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투자의 재원조달면을 보면 1986~89년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총투자율의 일부를 해외로부터의 자금을 동원하여 해결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투자재원의 조달측면에서 자립도에 접근하는 상황이다.

국민생활의 안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소비자물가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 나라는 만성적 인플레이에 시달리다가 1980년대에 경제안정화정책의 꾸준한 집행으로 물가안정세를 정착시켰으나 1990년대에는 요소비용의 하나인 금리, 토지임대료, 임금상승 등으로 1990~94년간 평균 7%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丑 1> Major Indicators on the Korean Economy(I)

	1954~61	1962~66	1967~71	1972~76	1977~79	1954~79
Growth Rate of GNP(%)	3.6	7.9	9.7	10.2	9.7	7.7
Growth Rate of per Capita GNP(%)	0.9	5.0	7.3	8.3	7.9	5.2
Growth Rate by Sect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3.6	5.9	1.6	6.2	1.1	3.9
Mining and Manufacturing	11.2	14.3	19.9	18.2	14.8	15.2
Social Overhead Capital and Other Services	3.5	8.5	12.4	8.5	10.3	7.9
	1954	1962	1967	1971	1976	1979
Per Capita GNP (\$)	70	87	142	278	765	1,624
Population (1,000 persons)	20,823	26,513	30,131	32,883	35,860	37,605
Rate of Increase in Population (%)	2.89	2.86	2.34	1.97	1.64	1.58
Export (million \$)	24	55	335	1,132	7,814	15,500
Rate of Increase in Export (%)	-38.9	34.1	34.0	28.3	56.2	21.9
Share of Exports by Sector						
Agriculture	-	22.9	4.7	2.8	2.7	-
Fishery	-	22.1	14.7	7.7	6.4	-
Mining	-	28.0	10.5	3.5	1.1	-
Manufacturing	-	27.0	70.1	86.0	89.8	92.0
Share of GNP by Sector(%)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39.8	36.6	30.1	27.0	23.8	20.6
Mining and Manufacturing	12.7	16.3	20.6	22.4	28.8	28.5
Social Overhead Capital and Other Services	47.5	47.1	49.3	50.6	47.4	50.9
Gross Investment Ratio (%)	11.9	12.8	21.9	25.2	25.5	35.9
Domestic Saving Ratio	6.6	3.2	11.4	15.4	23.1	28.2
Foreign Saving Ratio	5.3	10.7	8.8	10.7	2.4	6.5
Ratio of Total Tax to GNP(%)	6.9	10.6	12.0	15.0	17.4	17.9
Implicit Price Deflator of GNP (1975=100.0)	2.9	11.6	27.4	45.9	117.7	198.9
Increase Rate of Price Deflator (%)	62.1	18.4	15.6	8.8	17.7	20.5

주 : 1) Economic Planning Bureau Economic Planning Board, *Handbook of Korean Economy*, 1979, pp.3~9.

2) The Bank of Korea, *National Income in Korea* 1978, pp.274~275

<丑 2> Major Indicators on Korean Economy(II)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Total GNP(billion \$)	1.9	3.0	8.1	20.9	60.5	89.7	242.2	292.0	305.7	330.8	376.9
Per capita GNP(\$)	79	105	252	594	1,592	2,242	5,883	6,757	7,007	7,513	8,483
Total Export (million \$)	33	175	835	5,081	17,505	30,283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Current Account Balance(million \$)	13	9	-623	-1,887	-5,321	887	-2,179	-8,728	-4,528	-385	-4,778
Total Population (1000 persons)	25,012	28,705	32,241	35,281	38,124	40,806	42,869	43,268	43,663	44,056	44,453
Rate of Increase in Population(%)	3.0	2.6	2.2	1.7	1.6	0.99	0.99	0.93	0.91	0.90	0.90
Urbanization Ratio(%)	28.0	33.6 ¹⁾	41.1	48.4	57.3	65.4	74.4	-	-	-	-
Share of GNP by Sector(%)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37	38	27	25	15	13	9	8	7	7	7
Mining and Manufacturing	16	20	22	28	31	30	30	29	28	27	27
Social Overhead Capital and other Services	47	42	51	47	54	57	61	63	65	64	64
Gross Investment Ratio(%)	10	14	26	29	32	30	37	39	36	35	36
Domestic Saving Ratio	9	13	19	18	23	29	36	36	35	35	35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 Index (%)	13.4 ²⁾	11.8 ³⁾	16.3	24.9	28.8	2.4	8.6	9.3	6.2	4.8	6.2
Unemployment Rate (%)	-	7.4	4.4	4.1	5.2	4.0	2.4	2.3	2.4	2.8	2.4
Increase Rate of Money Supply M ₂ (%)	-	53	27	28	27	16	17	21	19	18	19

주 : The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Yearbook. 1995.

자료 : 1) figure is for 1966.

2) figure is for 1961(increase rate of producer price index).

3) figure is for 1966.

<표 3> IMD가 발표한 1995년 各國의 分野別 競爭力 順位

	국 내 경쟁력	국제화	정 부	금 융	사회간접 자 본	기업경영	과학기술	인적자원	종합순위
아르헨티나	40	33	8	36	35	27	37	27	29
호 주	23	31	9	16	4	19	20	16	19
오스트리아	17	13	18	13	14	12	9	13	13
벨기에	18	7	42	14	18	17	12	20	19
브라질	44	36	25	37	37	32	29	35	37
캐나다	24	15	19	11	3	16	18	8	12
칠 레	11	16	10	15	22	9	27	23	20
중 국	12	27	21	44	45	47	26	40	34
콜롬비아	36	42	23	28	46	30	32	42	36
체 코	37	25	37	42	41	45	34	31	38
덴마크	16	11	20	7	9	7	11	2	9
이집트	30	24	15	29	21	29	30	34	27
핀란드	29	12	17	23	7	10	7	7	16
프랑스	15	6	35	24	15	21	5	15	17
독 일	8	5	13	8	11	14	3	9	6
그리스	41	39	47	40	42	40	39	32	43
홍 콩	3	3	2	4	17	8	23	19	3
헝가리	46	44	45	45	39	46	46	37	46
아이슬랜드	26	38	28	35	8	24	24	5	25
인 도	28	40	30	30	43	39	35	47	39
인도네시아	27	32	31	26	36	38	43	44	33
아일랜드	20	10	29	19	24	23	19	22	22
이스라엘	13	26	36	31	26	18	16	17	23
이탈리아	25	20	46	38	34	26	21	30	30
일 본	4	9	27	6	28	4	2	6	4
요르단	34	45	16	39	47	42	47	41	41
한 국	6	34	24	34	30	25	15	21	24
말레이시아	5	21	4	18	20	22	33	25	21
멕시코	45	35	39	46	33	41	45	39	44
네덜란드	14	4	26	5	13	11	13	11	7
뉴질랜드	22	23	3	10	6	6	22	12	8
노르웨이	19	30	22	17	①	13	17	3	10
페 루	39	37	12	32	32	33	36	38	32
필리핀	33	29	32	27	44	34	42	43	35
폴란드	43	47	43	43	38	44	38	33	45
포르투갈	35	28	34	25	31	37	41	29	31
러시아	48	48	48	48	48	48	48	46	48
싱가포르	2	2	①	①	12	5	10	①	2
남아공	42	43	38	20	19	35	28	48	42
스페인	32	19	41	33	25	34	25	28	28
스웨덴	31	17	33	22	5	2	6	14	15
스위스	10	18	7	3	10	3	4	4	5
대 만	7	14	5	12	29	15	8	18	11
태 국	9	22	11	21	40	28	31	26	26
터 키	38	41	41	41	27	36	40	36	40
영 국	21	8	14	9	16	20	14	24	18
미 국	①	①	6	2	2	①	①	10	1
베네수엘라	47	46	44	47	23	43	44	45	47

경제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꾸준한 증가는 실업률의 안정을 가져와 1960년에 7.4%에 달하던 실업률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평균 2.5%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은 1960~69년간에는 연평균 7.8%, 1970~79년간에는 연평균 8.5%, 1980~89년간에는 연평균 8.0%를 보였고, 1990~94년간에는 연평균 7.5%를 시현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나라 경제는 개발도상국 중의 모범적인 압축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보다 다소 앞서 가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 비추어 보거나 선진국에 비교할 때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게 지적된다. 우리 경제의 애로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처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 경제는 이제부터는 7% 정도의 적정경제성장률(optimum economic growth rate)에 만족하면서 내실을 다져가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간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불식하고 연간 국민총생산의 2%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70~80억 달러)를 유지하여 누적된 외채를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원(IMD)이 발표한 1995년 「국가경쟁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41개 국가 중 우리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4위로 현상유지에 그친 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른바 아시아의 세 마리 용은 지난해에 비하여 순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지난해에 칠레에 뒤지더니 금년에는 말레이시아에게까지 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대에 못미치는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원론적 수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Ⅲ. 國家競爭力과 職業訓練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일반적인 총체적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해 보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식 (1)에서 우리는 일반적 총체적 생산함수의 전형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Y = GNP = f(K, N, L, T, E, QIL, S) \dots\dots\dots (1)$$

여기서,

Y : GNP(국민총생산)

f : 함수관계를 표시하는 형태

K : 자본존재량

N : 노동력의 가치

L : 토지

T : 기술수준

E : 기업가의 경영능력 수준

S :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QIL :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식 (1)에서 우리는 GNP의 증대(경제성장)는 자본존재량, 노동력, 토지 등의 양적 투입의 증대와 기술수준, 기업가의 경영능력, 노동력의 질적 수준,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의 개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타 요소의 질적 개선으로 달성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항목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첩경이라고 사료되어 노동력의 질적 수준(quality index of labor force)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 중에서도 직업훈련의 개선을 분석의 중점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은 ① 공적 교육수준의 향상, ② 직업훈련의 강화, ③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의 원활화 촉진, ④ 의료비 지출의 확대, ⑤ 영양수준의 제고, ⑥ 각종 정보수집체제의 개선, ⑦ 여가를 위한 지출의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업훈련(현장훈련: on the job training)과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생산성의 변동요인을 가장 대표적인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중선형회귀분석 방정식을 설정해 보았다.

$$Y = f(K, N, QIL) \dots\dots\dots (2)$$

여기서,

Y : GNP (국민총생산)

f : 함수관계를 표시하는 형태

K : 자본존재량

N : 노동력의 크기

QIL : 노동력의 질적지수

위의 방정식을 정식화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 자본존재량(국부), 취업자수, 노동력의 질적 지수를 나타내는 대용변수(Proxy) 등이 필요하여 이들 통계를 이용하였는바, 먼저 국민총생산 통계는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였고(경상시장가격계열 통계) 자본존재량 통계는 표학길 교수의 1992년도 발표 자료(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90)를 이용하였다.

취업자수는 통계청의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였고, 노동력의 질적 지수로는 두 가지를 차례로 이용해 보았는데 그 하나는 우리 나라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투자총액이다. 이들 두 가지 통계를 노동력의 질적 지수의 대용변수로 이용한 근본 이유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 변화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대학교육의 수준 여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였고, 또 다른 변수인 직업훈련 투자총액은 공적 교육보다도 한 나라의 생산성 향상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존재량의 정의를 NK1, NK2, NK3로 구분한 것은 자본존재량의 개념을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점차 넓혀가기 위함이다. NK1은 표학길 교수의 자료에서 RFA(Reproducible Fixed Assets)와 NRFA(Non-reproducible fixed assets)를 합친 값이고, NK2는 NK1에다 Inventory Stocks를 합한 값이며, NK3는 표학길 교수의 자료에서 GDW(Gross domestic wealth) 값을 사용한 것이다.

② NK1, LAB(취업자수), NOUS(대학생수로 표시한 노동력의 질적 지수의 대용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는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은 자본존재량, 노동력의 투입 증대로 주로 달성된 것이고, 노동력의 질적 지수의 대용변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의 증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NK2, LAB, NOUS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NK1을 자본존재량의 개념으로 사용했을 때와 매우 유사한 통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도별 주요 변수의 변동추이(1)

(단위 : 억원)

obs	GNP	RFA	NRFA	INV	GDW
1953	479.0000	NA	NA	NA	NA
1954	662.0000	4730.000	2960.000	149.3000	7212.500
1955	1145.000	6772.000	4207.000	211.3000	10764.70
1956	1515.000	8283.000	5178.000	375.2000	13730.70
1957	1971.000	9764.000	6088.000	509.2000	16481.70
1958	2047.000	10343.00	6467.000	637.6000	17128.30
1959	2175.000	11452.00	7247.000	649.5000	18357.10
1960	2449.000	12213.00	7921.000	699.0000	19930.00
1961	2942.000	14419.00	9434.000	784.5000	23246.00
1962	3555.000	17157.00	10741.00	949.4000	27685.70
1963	5029.000	18844.00	11951.00	1190.000	32484.20
1964	7163.000	24172.00	15438.00	1703.800	39398.80
1965	8057.000	28901.00	18200.00	2444.300	49032.40
1966	10370.00	33866.00	21487.00	2961.700	60804.20
1967	12812.00	39396.00	24372.00	3796.900	76138.80
1968	16529.00	47486.00	29322.00	4725.800	98809.10
1969	21553.00	56860.00	35403.00	6186.900	142217.2
1970	27884.00	72439.00	45172.00	8144.100	181327.3
1971	34191.00	86171.00	54947.00	12628.60	229795.3
1972	41935.00	105321.0	68256.00	16164.90	269567.8
1973	53775.00	137001.0	91741.00	20304.00	324718.8
1974	75917.00	208601.0	141982.0	27223.80	439934.0
1975	101292.0	284671.0	196184.0	40846.20	599676.2
1976	138997.0	351921.0	247384.0	53332.80	773214.6
1977	177958.0	452367.0	323745.0	69995.00	1046024.
1978	240627.0	608926.0	432963.0	88429.10	1514438.
1979	308721.0	894831.0	634703.0	120243.6	1990614.
1980	368570.0	1322261.	947124.0	159320.7	2599693.
1981	457029.0	1684116.	1224279.	204154.2	3129419.
1982	524605.0	2001688.	1480406.	263389.2	3624047.
1983	620860.0	2291608.	1716206.	302732.8	4246270.
1984	710446.0	2638288.	2003332.	358093.0	4925046.
1985	793011.0	3058987.	2362159.	419642.8	5630824.
1986	929093.0	3476088.	2718523.	472271.6	6364040.
1987	1097265.	4003497.	3173389.	549286.0	7422404.
1988	1313713.	4613814.	3624088.	637560.9	8980915.
1989	1479416.	5225649.	4084955.	730929.2	10971113
1990	1782621.	6459267	4986701	791180.1	13455674
1991	2142399.	NA	NA	NA	NA
1992	2387046.	NA	NA	NA	NA
1993	2655179.	NA	NA	NA	NA
1994	3028670.	NA	NA	NA	NA

주 : obs : 연도

GNP : 국민총생산

RFA : Reproducible fixed assets

NRFA : Non-residential fixed assets

INV : Inventory stocks

GDW : Gross Domestic Wealth

자료 : Hak K. Pyo,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90. KDI Working Paper No.9212 May 199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표 5> 연도별 주요변수의 추이(2)

obs	LAB	NOUS	JTI	DEF
1953	NA	NA	NA	0.400000
1954	NA	NA	NA	0.500000
1955	6,049.000	NA	NA	0.900000
1956	5,879.000	NA	NA	1.100000
1957	6,085.000	NA	NA	1.400000
1958	6,590.000	NA	NA	1.400000
1959	6,603.000	NA	NA	1.400000
1960	6,418.000	98.00000	NA	1.600000
1961	7,374.000	143.0000	NA	1.800000
1962	7,556.000	117.0000	NA	2.100000
1963	7,662.000	108.0000	NA	2.700000
1964	7,799.000	116.0000	NA	3.600000
1965	8,206.000	109.0000	NA	3.800000
1966	8,423.000	136.0000	NA	4.300000
1967	8,717.000	129.0000	NA	5.000000
1968	9,155.000	129.0000	NA	5.800000
1969	9,414.000	139.0000	NA	6.700000
1970	9,617.000	153.0000	NA	7.700000
1971	9,946.000	163.0000	8.930000	8.700000
1972	10,379.00	173.0000	9.630000	10.20000
1973	10,942.00	188.0000	16.43000	11.60000
1974	11,421.00	205.0000	26.78000	15.20000
1975	11,692.00	223.0000	40.85000	19.10000
1976	12,412.00	245.0000	84.77000	23.40000
1977	12,812.00	269.0000	209.0900	27.20000
1978	13,412.00	297.0000	295.5300	33.60000
1979	13,602.00	356.0000	572.7400	40.40000
1980	13,683.00	437.0000	652.6100	50.20000
1981	14,023.00	581.0000	684.7600	58.90000
1982	14,379.00	715.0000	594.1500	62.90000
1983	14,505.00	833.0000	572.7300	66.40000
1984	14,429.00	933.0000	553.9900	70.00000
1985	14,970.00	1,000.000	589.0700	73.30000
1986	15,505.00	1,041.000	625.7000	76.80000
1987	16,354.00	1,060.000	649.5900	80.70000
1988	16,870.00	1,079.000	851.6300	86.30000
1989	17,560.00	1,102.000	973.3800	90.90000
1990	18,085.00	1,127.000	1,229.450	100.0000
1991	18,612.00	1,143.000	1,835.210	110.2000
1992	18,961.00	1,167.000	2,669.160	116.8000
1993	19,253.00	1,196.000	3,225.000	122.7000
1994	19,837.00	NA	NA	129.3000

주 : obs : 연도

LAB : 취업자수(천명)

NOUS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천명)

JTI : 직업훈련 투자 총액

DEF : GNP 환가지수(GNP Deflator, 1990=100.0)

자료 : <표 4> 와 같음

<丑 6>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

SMPL range: 1961~90

Number of observations: 30

Convergence achieved after 7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115,299.43	34,913.992	-3.3023846	0.0029
NK1	0.1569489	0.0048007	32.692663	0.0000
LAB	15.900943	3.6204434	4.3919879	0.0002
NOUS	-156.37008	43.085242	-3.6293188	0.0013
AR(1)	0.3936074	0.2085768	1.8871098	0.0708
R-squared	0.999181	Mean of dependent var	378,864.5	
Adjusted R-squared	0.999050	S.D. of dependent var	498,974.6	
S.E. of regression	15,382.50	Sum of squared resid	5.92E+09	
Log likelihood	-329.0629	F-statistic	7,622.282	
Durbin-Watson stat	1.738013	Prob(F-statistic)	0.000000	

<丑 7>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

SMPL range: 1961~90

Number of observations: 30

Convergence achieved after 7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108,708.98	30,084.833	-3.6134146	0.0013
NK2	0.1484211	0.0037820	39.243625	0.0000
LAB	15.509104	3.1366035	4.9445537	0.0000
NOUS	-174.55728	37.765638	-4.6221191	0.0001
AR(1)	0.3511357	0.1986125	1.7679435	0.0893
R-squared	0.999285	Mean of dependent var	378,864.5	
Adjusted R-squared	0.999170	S.D. of dependent var	498,974.6	
S.E. of regression	14,372.72	Sum of squared resid	5.16E+09	
Log likelihood	-327.0259	F-statistic	8,731.854	
Durbin-Watson stat	1.822354	Prob(F-statistic)	0.000000	

<丑 8>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
 SMPL range: 1961~90
 Number of observations: 30
 Convergence achieved after 6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78,012.163	44,241.314	-1.7633328	0.0901
NK3	0.1186256	0.0043875	27.037431	0.0000
LAB	7.0420552	4.6123494	1.5267827	0.1394
NOUS	130.48198	47.525777	2.7454992	0.0110
AR(1)	0.4572748	0.2075682	2.2030102	0.0370
R-squared	0.998925	Mean of dependent var	378,864.5	
Adjusted R-squared	0.998753	S.D. of dependent var	498,974.6	
S.E. of regression	17,619.73	Sum of squared resid	7.76E+09	
Log likelihood	-333.1366	F-statistic	5,808.036	
Durbin-Watson stat	1.736718	Prob(F-statistic)	0.000000	

<丑 9>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
 SMPL range: 1972~90
 Number of observations: 19
 Convergence achieved after 15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289,893.66	298,998.18	-0.9695499	0.3487
NK1	0.1327703	0.0130323	10.187803	0.0000
LAB	24.689726	22.621691	1.0914182	0.2935
NJTI	72.782708	72.468992	1.0043290	0.3323
AR(1)	0.7805565	0.1737475	4.4924775	0.0005
R-squared	0.998613	Mean of dependent var	590,307.9	
Adjusted R-squared	0.998217	S.D. of dependent var	521,883.3	
S.E. of regression	22,034.77	Sum of squared resid	6.80E+09	
Log likelihood	-214.0659	F-statistic	2,520.808	
Durbin-Watson stat	1.600949	Prob(F-statistic)	0.000000	

<丑 10>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

SMPL range: 1972~90

Number of observations: 19

Convergence achieved after 15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608,546.37	319,673.77	-1.9036481	0.0777
NK2	0.1189992	0.0129853	9.1641399	0.0000
LAB	46.125957	22.096413	2.0874862	0.0556
NJTI	70.131696	64.853010	1.0813946	0.2978
AR(1)	0.8441051	0.1251999	6.7420613	0.0000
R-squared	0.998759	Mean of dependent var	890,307.9	
Adjusted R-squared	0.998404	S.D. of dependent var	521,883.3	
S.E. of regression	20,848.06	Sum of squared resid	6.08E+09	
Log likelihood	-213.0140	F-statistic	2,816.362	
Durbin-Watson stat	2.149376	Prob(F-statistic)	0.000000	

<丑 11>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

SMPL range: 1972~90

Number of observations: 19

Convergence achieved after 7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490,003.86	179,704.22	-2.7267243	0.0164
NK3	0.1171068	0.0081785	14.318826	0.0000
LAB	45.141549	15.157046	2.9782551	0.0100
NJTI	-80.004744	70.077431	-1.1416621	0.2727
AR(1)	0.7805565	0.1737475	4.4924775	0.0005
R-squared	0.998365	Mean of dependent var	590,307.9	
Adjusted R-squared	0.997898	S.D. of dependent var	521,883.3	
S.E. of regression	23,924.27	Sum of squared resid	8.01E+09	
Log likelihood	-215.6290	F-statistic	2,137.822	
Durbin-Watson stat	2.101299	Prob(F-statistic)	0.000000	

<丑 12>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R
 SMPL range: 1962~90
 Number of observations: 29
 Convergence achieved after 9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0.2032414	0.0632537	3.2131117	0.0037
RNK1	0.2042524	0.2018891	1.0117056	0.3218
RLAB	-0.5159745	0.7804856	-0.6610941	0.5148
RNOUS	0.1832333	0.1382403	1.3254699	0.1975
AR(1)	0.5279687	0.1880726	2.8072599	0.0098
R-squared		0.309554	Mean of dependent var	0.250272
Adjusted R-squared		0.194479	S.D. of dependent var	0.089437
S.E. of regression		0.080271	Sum of squared resid	0.154641
Log likelihood		34.74295	F-statistic	2.690030
Durbin-Watson stat		1.939912	Prob(F-statistic)	0.055336

<丑 13>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R
 SMPL range: 1962~90
 Number of observations: 29
 Convergence achieved after 10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0.2028400	0.0666216	3.0446574	0.0056
RNK2	0.2042275	0.2172229	0.9401750	0.3565
RLAB	-0.5088111	0.7872303	-0.6463307	0.5242
RNOUS	0.1836144	0.1392027	1.3190439	0.1996
AR(1)	0.5213369	0.1929862	2.7014211	0.0125
R-squared		0.305116	Mean of dependent var	0.250272
Adjusted R-squared		0.189652	S.D. of dependent var	0.089437
S.E. of regression		0.080511	Sum of squared resid	0.155568
Log likelihood		34.65630	F-statistic	2.638260
Durbin-Watson stat		1.943371	Prob(F-statistic)	0.058823

<丑 14>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R

SMPL range: 1962~90

Number of observations: 29

Convergence achieved after 10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0.1654635	0.0735821	2.2486926	0.0340
RNK3	0.3476718	0.2582433	1.3462960	0.1908
RLAB	-0.5313770	0.7929461	-0.6701301	0.5092
RNOUS	0.1968184	0.1338244	1.4707216	0.1544
AR(1)	0.4542942	0.2089690	2.1739787	0.0398
R-squared	0.325691	Mean of dependent var	0.250272	
Adjusted R-squared	0.213621	S.D. of dependent var	0.089437	
S.E. of regression	0.079311	Sum of squared resid	0.150967	
Log likelihood	35.09168	F-statistic	2.901564	
Durbin-Watson stat	1.975886	Prob(F-statistic)	0.043195	

<丑 15>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R

SMPL range: 1973~90

Number of observations: 18

Convergence achieved after 5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0.0570812	0.0388488	1.4693167	0.1655
RNK1	0.3846693	0.1145219	3.3589137	0.0051
RLAB	1.4697364	0.7986187	1.8403481	0.0887
RNJTI	0.0769938	0.0402640	1.9122225	0.0781
AR(1)	-0.1827450	0.3240666	-0.5639118	0.5824
R-squared	0.749749	Mean of dependent var	0.234594	
Adjusted R-squared	0.672749	S.D. of dependent var	0.089331	
S.E. of regression	0.051103	Sum of squared resid	0.033949	
Log likelihood	30.91841	F-statistic	9.736698	
Durbin-Watson stat	1.988769	Prob(F-statistic)	0.000722	

<丑 16>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R
 SMPL range: 1973~90
 Number of observations: 18
 Convergence achieved after 5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0.0528220	0.0381615	1.3841685	0.1896
RNK2	0.4036371	0.1135658	3.5542132	0.0035
RLAB	1.4836170	0.7810357	1.8995509	0.0799
RNJTI	0.0755032	0.0388722	1.9423430	0.0741
AR(1)	-0.2138573	0.3154928	-0.6778516	0.5098
R-squared	0.758040	Mean of dependent var	0.234594	
Adjusted R-squared	0.683590	S.D. of dependent var	0.089331	
S.E. of regression	0.050249	Sum of squared resid	0.032825	
Log likelihood	31.22162	F-statistic	10.18195	
Durbin-Watson stat	2.001639	Prob(F-statistic)	0.000585	

<丑 17> LS // Dependent Variable is GNPR
 SMPL range: 1973~90
 Number of observations: 18
 Convergence achieved after 4 iterations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	2-TAIL SIG.
C	0.0349224	0.0464149	0.7523974	0.4652
RNK3	0.5975892	0.1772277	3.3718726	0.0050
RLAB	1.1226499	0.7445426	1.5078382	0.1555
RNJTI	0.0462724	0.0380157	1.2171923	0.2452
AR(1)	0.1416434	0.2826123	0.5011934	0.6246
R-squared	0.747582	Mean of dependent var	0.234594	
Adjusted R-squared	0.669915	S.D. of dependent var	0.089331	
S.E. of regression	0.051324	Sum of squared resid	0.034243	
Log likelihood	30.84082	F-statistic	9.625490	
Durbin-Watson stat	2.096208	Prob(F-statistic)	0.000761	

④ NK3, LAB, NOUS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은 주로 자본투입에 의한 것이고 노동력 투입 증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⑤ NK1, LAB, NJTI(직업훈련투자총액)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본투입의 증가만이 GNP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⑥ NK2, LAB, NJTI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NK1을 자본존재량 통계로 이용한 것보다는 다소 나은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어, 자본존재량 투입의 증대와 노동투입의 증대가 GNP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⑦ NK3, LAB, NJTI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 분석의 결과는 자본투입 및 노동력의 투입의 증대는 GNP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직업훈련 투자 총액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⑧ 이제 분석방법을 다소 달리하여 RNK1(NK1의 증가율), RLAB(LAB의 증가율), RNOUS(NOUS의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GNPR(GNP의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⑨ RNK2(NK2의 증가율), RLAB, RNOUS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R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과 RNK3, RLAB, RNOUS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R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모두 통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⑩ 그러나 RNK1, RLAB, RNJTI(직업훈련투자 총액 증가율)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R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RNK2, RLAB, RNJTI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R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RNK3, RLAB, RNJTI를 독립변수로 하고 GNPR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그다지 의미있는 값을 보여주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GNP증가는 자본투입의 증가와 노동투입의 증가가 주도했다.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나타내 주는 변수의 대용변수(Proxy)로서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 또는 직업훈련투자 총액을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했을 경우 기대한 만큼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는 못했으나 이들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GNP 증가가 따라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통계분석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종래와 같이 자본투입의 지속적 증대, 노동투입의 착실한 증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싶다. 즉 앞으로의 성장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고학력화, 현장훈련의 팔목할 만한 질적 개선과 양적 증대를 통한 인적자본 투자의 지속적 증대에 의해서만이 달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IV. 職業訓練 政策의 改善方向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는 자본, 노동 등 기본적 생산요소의 비용절감에 의한 생산비용의 비교우위에서 지식·기술·정보 등 기술혁신의 비교우위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지식·기술·정보는 물적 투자보다는 인적자본에 체화(embodied)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개발과 관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따른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력의 질적 지수(quality index of labor)는 단기간에 제고하기가 어렵다.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1955~78년간의 우리 나라의 노동력의 질적 지수는 1955년을 100.0으로 볼 때 1979년에 123.5를 나타내고 있어 2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88%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선진국에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노동력의 구조전환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령화·고학력화·여성화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과 고도기술 사회의 도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라 하겠다. <표 19>에서 보듯이 국제간의 무역이 크게 늘게 되고 기업활동과 자국의 흐름이 국제화시대에 적응해 가면서 국가간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기술혁신과 그 전파 속도는 빨라져 각국의 경영환경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선진국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데 반하여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여건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용함에 있어 크게 뒤진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유길상 박사는 그의 최근의 연구논문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역설하고 있다. “잘 훈련되고 의욕이 왕성한 근로자들이 고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가에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바,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한결같이 인적자원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인적자원이 국제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개발전략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우위에 두어야 하며 기술우위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생산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고급 기술인력과 현장기술자 및 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관리할 산업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운영기조도 지금까지의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중시의 경제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인적자본(human capital) 중시의 경제운영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1. 職業訓練 投資規模의 劃期的 增大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투자실적을 <표 20>을 통해서 보면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경에 따라 다소 증감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 이후에는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해 주고 있다.

<표 18> 勞働力の 質的指數¹⁾

1955 = 100.0

연 도	질 적 지 수	연 도	질 적 지 수
1955	100.0	1968	116.9
1956	100.9	1969	117.3
1957	108.7	1970	116.0
1958	106.7	1971	117.9
1959	109.5	1972	116.6
1960	109.8	1973	116.0
1961	103.3	1974	118.2
1962	109.7	1975	120.5
1963	112.7	1976	119.5
1964	112.9	1977	121.8
1965	113.1	1978	122.8
1966	114.6	1979	123.5
1967	116.2		

주 : 노동력의 질적 지수는 연령구조와 학력수준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 송위섭, 「노동력의 질적 수준향상과 경제성장」, 『경제학연구』, 제32집, 1984. 12. 169쪽.

<표 19>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의한 변화

변화의 영역		1990년 중반 이후의 전망
산업 및 기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작업장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장비 이용과 이를 이용한 통제 · CAD-CAM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의 시스템화 · 선진국의 대규모 노동 및 자본생산성 증가 · 제3세계는 세계생산 및 무역확대 과정에 재충적으로 통합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networking)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의 대규모 확산 · 원거리 통신망 발달과 저렴화로 인한 원격판매, 원격은행, 원격학습, 원격컨설팅, 재택근무의 발달 · 개인고객과 지역적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적 서비스(craft services), 노약자를 보살피는(caring) 서비스 및 창조적 서비스의 증가
	기업규모와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업종에 중소기업 계속적으로 발생 ·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과 공생적 연계관계를 유지하는 자본·연구개발 집약적 기업은 세계적인 과점체제를 구축하며 발전 ·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간의 변화무쌍한 연형합종에 의한 다산업기업(conglomerates) 생성
	기업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의 유연 경영형태가 발전 ·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인력 및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 · 노동시장의 분단 경향 속에서 핵심적 근로자들은 기업의 광범한 의사결정에 참가
거시경제 와 고용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사회변화와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투자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지출에 대한 믿음 증가 · WTO 등 새로운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을 통하여 세계경제 성장 지속 · 제3세계의 선진국 따라잡기 행진 지속 · 새로운 안정적 세계경제원리 등장
	고용과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의 구조적 실업을 동반하는 약한 불경기 상태로 복귀 · 자영업과 신축적인 시간제 고용의 증가 · 평생학습과 훈련에 노동자들이 적극 참가 · 노동 의지가 있는 개인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도래 · 노동집약적인 기능, 노약자를 보살피는 노동과 창조적 직종 및 서비스 직의 증가 · 노동시간의 단축과 남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 증가

자료 : 박덕제, "산업인력개발을 위한 민간의 역할증대방안", 「산업인력개발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1995, 10. 33쪽에서 인용.

<표 20> 한국의 직업훈련투자 실적(1971~93)

(단위 : 백만원, %)

연도	직업 훈련 투자			총투자 증가율	공공투자 증가율	민간투자 증가율	공공투자/ 일반회계	총투자/ 국민총생산
	총투자	공공투자	민간투자					
1971	893	893	-	-	-	-	0.163	0.026
1972	963	963	-	7.8	7.8	-	0.137	0.023
1973	1,643	1,643	-	70.6	70.6	-	0.252	0.031
1974	2,678	2,678	-	63.0	63.0	-	0.263	0.035
1975	4,085	4,085	-	52.5	52.5	-	0.264	0.040
1976	8,477	8,477	-	107.5	107.5	-	0.391	0.061
1979	20,909	9,793	11,116	146.7	15.5	-	0.357	0.117
1978	29,553	13,838	15,715	41.3	41.3	41.4	0.391	0.123
1979	57,274	22,246	35,028	93.8	60.8	122.9	0.440	0.186
1980	65,261	29,417	35,844	13.9	32.2	2.3	0.454	0.178
1981	68,476	28,601	39,875	4.9	-2.8	11.2	0.362	0.150
1982	59,415	35,677	23,738	-13.2	24.7	-40.5	0.389	0.114
1983	57,273	38,860	18,413	-3.6	8.9	-22.4	0.382	0.093
1984	55,399	36,517	18,882	-3.3	-6.0	2.5	0.330	0.079
1985	58,907	36,594	22,313	6.3	0.2	18.2	0.295	0.075
1986	62,570	39,412	23,158	6.2	7.7	3.8	0.286	0.069
1989	64,959	48,601	16,358	3.8	25.3	-29.4	0.308	0.061
1988	85,163	60,861	24,302	31.1	25.2	48.6	0.348	0.065
1989	97,338	67,377	29,961	14.3	10.7	23.3	0.350	0.066
1990	122,945	64,339	58,606	26.3	-4.5	95.6	0.284	0.069
1991	183,521	70,108	113,413	49.3	9.0	93.5	0.242	0.086
1992	266,916	77,367	189,549	45.4	10.4	67.1	0.214	0.112
1993	322,500	83,427	239,073	20.8	7.8	26.1	0.199	0.122
합계	1,697,118	781,774	915,344	35.7	21.7	21.2	0.288	0.093

주 : 1) 공공투자란 노동부 소관의 일반회계투자를 말하며, 민간투자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의무사업체의 직업훈련실시 및 관련사업, 분담금투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중앙정부의 고용촉진훈련(1994년 예산은 16,614백만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1994년 예산 13,919백만원)는 연도별 자료구득이 불가능하여 전체 재정규모 추계에서 제외되었음.

3) 민간투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1977~86년의 경우 민간투자=(실제 의무훈련인원×1인당 실훈련비)+(분담금인원×분담금기준액), 1987~93자료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사업체 명단」의 총훈련투자 신고금액, 민간투자의 구체적인 연도별 내역은 제Ⅲ장 3절의 <표 26> 참조.

자료 :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직업훈련투자의 적정배분과 운용」, 1995. 2. 19쪽.

특히, 직업훈련투자 총액 규모는 1990년에는 26%, 1991년에 49%, 1992년에 45%, 1993년에는 21%씩 전년대비 증가를 보여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그 구성을 보면 공공투자 보다는 민간투자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중에 경상 GNP는 1990년에 20.5%, 1991년에 20.2%, 1992년에 11.4%, 1993년에 11.1%씩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직업훈련투자의 중요성을 정부는 물론 기업경영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겠다. 정부는 직업훈련투자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긴 안목을 가지고 적정수준의 직업훈련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하겠다.

2. 職業訓練 對象人員의 增加

<표 21>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대상인원의 증가추이를 보면 1992년부터 예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1993년에는 전년비 4.4% 증가에 그쳤으나 1994년에는 무려 전년비 21.1%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것도 민간부문의 사업내 직업훈련이 1993년에 24.6%의 증가를 보인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보겠다.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환경과 기술의 급속한 진전상황을 감안할 경우 1994년의 직업훈련 대상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는(218천명/19,837천명=1.1%) 것은 우리의 주위를 요한다. 즉 100명 중 한 명만이 직업훈련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비용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의 인원만이 직업훈련의 대상으로서의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겠다. 다소의 어려움은 인정하더라도 정부·민간부문 모두 직업훈련 대상인원을 짧은 기간내에 배가시키는 노력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

3. 職業訓練과 職業訓練의 連繫強化

선진국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장점은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직업교육기관은 주로 양성훈련에 치중하고 직업훈련기관은 향상훈련에 전념하는 것이 양기관의 본래의 설립 취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담당기관은 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 즉 관리감독자, 다기능 기술자, 기능장, 훈련교사 등의 훈련에 치중하고 그리고도 여유시설이 있을 경우 일부 양성훈련에 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에 수정이 가해졌으면 한다.

<표 21> 연도별 직업훈련 실적(1967~92)

(단위 : 천명)

연도 구분		계	1967~71	1972~76	1977~81	1982~86	1987~91	1992	1993	1994
총 계		2,151	99	314	501	279	370	180	188	218
기 능 사	계	2,070 (100.0)	99	313	496	273	313	179	184	213 (100.0)
	소 계	557 (26.9)	36	81	120	121	114	26	26	32 (14.9)
	공 단	273 (13.2)	1	11	56	66	79	18	18	23 (10.7)
	대 한 상 의	2 (0.1)	-	-	-	-	-	-	-	2 (0.8)
	장애인 공 단	0.4 (0.02)	-	-	-	-	-	-	0.2	0.2 (0.1)
	정 부 기 관	159 (7.7)	13	36	34	35	25	5	5	5 (2.3)
	자 치 단 체	108 (5.2)	18	27	337	115	116	122	122	152 (71.4)
	K.N.O.P	15 (0.7)	4	6	3	1	0.01	-	-	-
	사업내	1,191 (57.5)	48	177	337	115	116	122	122	152 (71.4)
	인 정	322 (14.6)	14	54	38	37	83	30	36	29 (13.7)
고용근로자		26	-	-	-	-	26	-	-	-
관리·감독자		31	-	-	-	3	28	-	-	-
다기능기술자		0.9	-	-	-	-	-	-	-	0.9
기능장		5	-	-	-	2	2	0.5	0.3	0.2
훈련교사		18	0.4	1	5	2	0.6	0.5	4	4

주 : 1) 1992년 실적부터 관리·감독자 훈련 등 직무능력 향상훈련은 기능사 훈련에 포함.

2) ()안의 숫자는 훈련실시 주체별 기능사 훈련비중(%)임.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95. 8.

유길상, “공공부문 산업인력개발체제의 발전방안”, 「업인력개발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4쪽에서 재인용.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학력인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같은 수준의 훈련 내용이라면 가능한 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은 직업훈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점인정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인정 또는 4년제 대학졸업 인정 수준의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해 놓은 엄격한 기준을 직업훈련 담당기관이 지키고 직업훈련 외에도 교양교육, 전공과목 교육을 최소한이라도 성실히 실시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4. 民間主導의인 職業訓練體制의 政策

최근까지도 주요 직업훈련은 응당 정부의 관장사업으로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분위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함에는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체제로써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예산의 뒷받침과 정책기조의 변경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직업훈련체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민간의 창의와 적응력, 조직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술진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정보화사회의 정착 또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수긍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업훈련정책의 기본계획수립,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국가기술검정자격제도의 기본골격 작성, 직업훈련에 관계된 하부구조의 구축 등에 그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직업훈련기관은 점차 민간이 운용하되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상호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업훈련의 내용도 알차게 되고 우수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시설투자, 인원보충, 교육기자재 지급, 정보의 제공 등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훈련 바우처(training voucher)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훈련바우처제도는 미국의 상품권과 비슷한 것으로 근로자가 교육비용을 쿠폰(coupon)형식으로 수령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쿠폰을 제시하여 교육훈련을 수강하고, 교육훈련기관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여 교육훈련비를 수령하는 제도로서 훈련 수요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많이 개설한 직업훈련기관일수록 더 많은 수강생을 받

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직업훈련사업을 민간주도로 운영할 경우 이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인 지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정부와 지방상공회의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하나의 제3섹터(sector)로서 운영하되 지방정부,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학계가 공동참여하는 지방의 협의체에서 그 구체적 기구가 탄생하여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직업훈련은 이제 사용자만이 관심을 갖거나 정부만이 관심을 갖고 주도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이제야말로 산업평화의 기초를 다지고 근로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자질 향상에 발벗고 나서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몫을 크게 늘리는 데 일조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몫은 국가기술검정자격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힘쓰는 일이다. 학력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국가기술검정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일정수준의 학력을 국가가 인정하여 주도록 국가기술검정자격증의 수준을 제고하고, 학력에 얽매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을 못 받아 좌절하는 수많은 기능인력, 현장기술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사업내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체에 대한 지원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기업체의 직업훈련분담금의 경감이 뒤따를 경우 많은 기업체가 직업훈련사업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인적자본 축적을 중시하는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우리 나라와 같이 양적 성장의 실적에 급급하던 중진국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수입규제보다도 더욱 큰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낙오되는 국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냉엄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운용하여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대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생산요소가격의 열위는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인적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저개발국·중진국은 선진국의 조직적 공세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경제질서에 대처하는 길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기술축적과 인적자본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길이다. 다행히도 우리 나라의 평균 연령은 1990년의 29.5세에서 2000년에는 32.9세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아직도 비교적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교육수준도 1970년의 5.74년에서 1980년에는 7.61년 1990년에는 다시 9.20년으로 늘었고, 1990년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60% 이상이 대학졸업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전망은 그다지 어둡지 않다.

주어진 여건을 잘 살려서 공적 교육수준의 양적 제고와 함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그들 졸업생들을 받아서 산업현장에 투입한 후 향상훈련에 발벗고 나선다면 다른 중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는 결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이제라도 사용자단체, 근로자조직, 정부 및 학계의 지혜를 모아 직업훈련의 획기적인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일취월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 권태한·김태현·최진호 공편, 『한국의 인구나 가족』, 일신사, 1995.
- 유길상·박덕제·이선, 「산업인력개발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자료 95-10, 1995.
- 윤석천·나영선, 『직업훈련투자의 적정배분과 운용』,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연구보고서, 94-7, 1995.
- 김수곤·이재원·이무근, 「21세기 한국산업사회와 신기능인력 양성정책방향」,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심포지엄 자료, 1994.
- 정택수·오영훈·김봉한·윤석천, 『고용보험실시에 대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연구보고서, 92-4, 1993.
- 박래영·이성진·정동준, 「한국의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직업훈련정책방향」,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0.
- 송위섭, 「노동력의 질적수준 향상과 경제성장」, 『경제학연구』, 제32집, 1984, 155~183쪽
- 송위섭, 「국가경쟁력과 노동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방향」,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1호, 1994, 411~439쪽.

- 원창희·김재원, 「남북한 인력양성체제와 효율적 인력활용방안」,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2호, 1995, 415~457쪽.
- 김유배, 「국가경쟁력과 인력정책의 과제」,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1호, 1994, 385~398쪽.
- 김수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1호, 1994, 399~410쪽.
- 김장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제5권, 한국노사관계학회, 1995, 289~317쪽.

- Becker, G.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i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Hak K. Pyo,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1990, KDI Working Paper No.921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y 1992,
- Schultz, T.W., *Investing in People, The Economics of Population Quality*, University of California